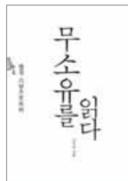


## ‘무소유’ 실천했던 법정스님 삶으로부터 세상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지혜 얻다



무소유를 읽다

고수유 지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 중에서)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72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93%가 우리나라에 ‘큰 어른’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 이유를 지식 사회 조차 자본의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ნი진 정신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삶의 길을 제시해줄 정신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큰 어른’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르침과 위안을 준다.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했고 큰 가르침을 남긴 법정스님은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시대를 초월한 ‘큰 어른’이다. 최근 6주기를 지나며 스님의 가

르침을 따르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스님의 철학이 집약된 ‘무소유’를 토대로 세상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지혜를 모은 책이 출간됐다. 동아일보 신춘문에 출간 작가 고수유가 펴낸 ‘무소유를 읽다’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스님의 글과 행적이 담겨 있다.

저자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허락을 받아 법정 스님이 남긴 모든 저작물을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주옥같은 명언을 실었다.

저자가 보는 법정 스님은 글과 언행이 일치되는 분이다. 법정은 산중에서 최소한의 음식과 물건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책 인세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했다. 스스로 무소유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무언가에 과도한 마음을 쏟아 자신의 삶보다 그것에 삶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는 물욕을 경계하라는 데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도서출판 사이다·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과학은 세계의 작동원리 보여주는 ‘창’

### 이공계의 뇌로 산다

완웨이강 지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반열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1만 시간을 노력했다”고. 1만 시간은 말로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제시한 법칙이다. 천재는 태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노력을 쏟아야 할 시간은 분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는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노력했느냐이다.

능력이 탁월한 이들은 일반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뇌 신경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눈에는 마치 특수한 재료로 만든 사람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이들은 독특한 훈련으로 뇌에 기술을 입력했

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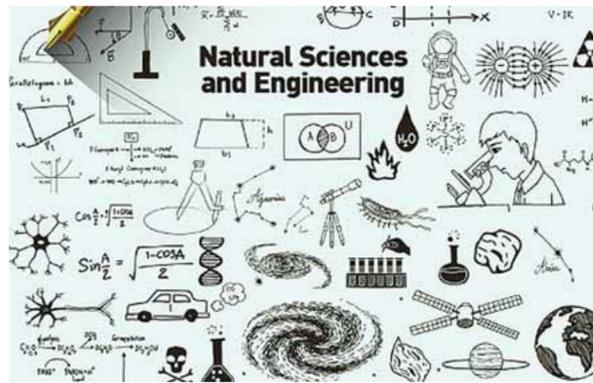
취미로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과정을 즐기 위해서지만, 프로 선수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공을 친다. 진정한 훈련은 운동량을 채우는 것이 아닌 미흡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대학 물리학과 연구원 완웨이강이 펴낸 ‘이공계의 뇌로 산다’는 과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책은 중국 아마존 부분 교양부문 베스트셀러 1위(2014년)에 오른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자는 방대한 지식과 융합적 사고를 토대로 한 글로 중국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과학자다. 다양한 실험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인하는 극적인 상황을 즐긴다. “이공계적인 사고방식은 장단점을 분석해 타협을 도출하는 반면, 인문

계적인 사고방식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언가에 올인하는 극적인 상황을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전자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절하지만, 후자는 상황 변화보다는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한 중국의 저력은 다른 아닌 기술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과학은 복잡한 이론이나 통계, 숫자의 나열보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기본 원리다. 일테면 이런 것들



‘이공계의 뇌로 산다’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초점을 둔다.

이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확률의 이해는 사고의 깨어 있는 정도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한편으로 오늘날 대인관계는 하나의 ‘생산력’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구직에 관한 한 연구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의 대학에서 조사대상 282명 중 임의로 100명을 선정해 면접조사를 했다. 채용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는 등 절차를 통해 입사한 이들과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수가 더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친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들이 아는 정보는 나도 알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

과 어울리는 것이 효과적인 교류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내용이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공계의 뇌로 산다’는 ‘과학을 통해 증명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과학자들도 파벌을 이루고 다양한 편견을 가지며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다솔·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현대미술 거장 10인의 공간 엿보기



코끼리의 방

전영백 지음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는 관용구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언급하기가 너무 거대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논란이 되는 이슈나 금기를 뜻한다.

오늘날 현대미술이 다루는 주제와 태도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감추고 싶지만 감춰지지 않는 문제나 현상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관람자들은 낯선 현대미술 작품들을 통해 명백한 현실과 직면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오늘날 공간이 갖는 여러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작업해온 현대미술의 거장 10인을 탐색한 책이 나왔다. 전영백 홍익대 예술대 교수가 펴낸 ‘코끼리의 방’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공간을 들여다본다. 저마다 뚜렷한 개성과 세계관을 지닌 작가들을 접하는 독자들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저자는 다양한 테마 아래 거장들을 탐색한다. ‘장소 특정성’ 개념에서는 리처드 세라의 일상 공간 속 산업적 설치와 고든 마타 클락의 반 건축을 분석한다. ‘빛과 건축의 송고’에서는 제임스 터렐의 작업을 통해 형태와 볼륨을 갖춘 빛과 올라퍼 엘리아슨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유사 자연을 탐색한다.

‘집으로서의 건축’과 ‘인체와 공간’에서는 각각 레이첼 화이트리드가 제시하는 뒤집힌 공간과 아니쉬 카푸어의 건축과 인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두성북스·2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상실에 대한 애도와 슬픔도 삶의 일부



에노

폴 하딩 지음

2010년 풀리처상 수상작가 폴 하딩의 두 번째 작품이 나왔다. 작가는 2009년에 출간된 데뷔작 ‘팅커스’로 풀리처상을 수상하며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올랐다. 당시 수상작품은 뉴잉글랜드를 배경으로 시계 수리공 조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땀장이 아버지, 목사인 할아버지에 이르는 3대에 걸친 크로스비 가문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번에 펴낸 ‘에노’는 ‘팅커스’의 주인공

공 조지 크로스비의 손자인 찰리와 찰리의 딸 케이트의 이야기다. 소설은 어느 가을날 찰리 크로스비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깊은 슬픔에 빠진 그를 두고 아내는 진정으로 떠나버리면서 찰리는 슬픔을 잊으려 술을 마시고 진통제를 남용한다.

소설은 가족형 슬픔과 상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고통 속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절망으로 무너져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어떤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는지를 그려낸다. 상실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의 묘사가 이 작품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외국인이 바라 본 한국사회 문제



미래시민의 조건

로버트 파우저 지음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기후 변화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남북 분단, 정경유착, 재벌체제, 인구 절벽, 하우스푸어 등 지금의 한국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파국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 같은 문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달리 보이

게 된다.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이라는 부제가 달린 ‘미래 시민의 조건’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1982년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30년 가까이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칼럼니스트 로버트 파우저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 한국을 만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풀어낸다. 그러면서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코리안 드림부터 1990년대 IMF 외환위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사회 문제의 원인을 민주주의라고 인식한 그는 우리의 실정과 속내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발전세를 더듬어본다. 〈세종서적·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b>남</b></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b>여</b></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b>남</b></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b>여</b></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휘안빌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해방비도 사면도시 신축예정 1988-24 (99년동 25-지)

제주아이브

<p>동나무 독채형객실</p> <p>레지던스형객실</p> <p>골프투어 최적지</p> <p>한라산등반 최적지</p> <p>쇼핑의 편리</p> <p>알리버다이먼트</p> <p>렌트가 90% 할인</p> <p>단체수요 사설원비</p>	<p>편안도움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사랑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p> <p>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p> <p>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p> <p>한라산 정상코스 15분, 성만약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지(입지대, 차량이동시간임)</p> <p>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amp;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p> <p>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p> <p>벨라 15원 동나무원비 1박 + KS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p> <p>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p>
--	--